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 추모행사 개최

‘치유 40년, 미래 40년’ 주제 11일 익산역 광장서... 비전 선포·추모 공연·사진전 등 열여

익산시가 오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를 맞아 익산역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철도역사상 가장 큰 인재사고로 시 전체가구의 70%가 파손되는 등 당시 복구비용으로만 200억이 넘게 투입되었다.

그 후 2년간의 복구 작업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다시 찾았고 현재 익산시는 철도 중심 도시, 호남의 3대 도시로 성장했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추모행사는 ‘치유 40년, 미래 40년’을 주제로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를 맞아 아픈 상처를 치유해 지난 과거를 털어내고,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미래 40년을 만들자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헌화와 추모식, 익산시의 새로운 미래 40년을 만들기 위한 비전 선포,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줄 추모 공연,

폭발사고 당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 등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추모행사에는 앞으로 미래 40년을 이끌어갈 익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미래 비전 선포식이 있을 계획이다.

선포식 후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별한 시민합창단과 시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마지막 추모공연에는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삼남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가수 하춘화가 출연하여 추모행사의 파나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대로 ‘추모’와 익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소룡동 장난감 도서관’ 개관

연령별 장난감 237종 총 700여점 구비

군산시는 8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식을 진행했다.

‘소룡동 장난감 도서관’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88㎡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영유아의 성장에 맞춘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연령별 장난감 237종의 총 700여점과 모래놀이터와 미끄

럼틀이 설치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나운동 장난감 도서관과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이 동일하게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지능발달과 감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

하고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군산의 아이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장난감 도서관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5세 이하 영유아 부모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뉘어 대여수량과 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준회원이 10회 이상 연체 없이 장난감 반납시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일자리 카라반’ 현장방문단,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방문

일자리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일자리 카라반(현장방문단)’이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를 방문했다.

일자리 카라반은 고용 촉진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실무자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단이다.

이날 일자리 카라반은 먼저 익산국가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산학 현황 파악 및 청년 구직자와의 간담회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북도청 실무자뿐만 아니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과 김중영 산학협력처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박현 의과대학장과 송문규 산학협력단장 각 대학 재학생 6명 등이 참석했다.

김중영 산학협력처장이 산학협력



일자리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일자리 카라반’이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를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황을 브리핑한 후 교수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및 구직 활동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현장방문단에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구인·구직 정

보 미스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인·구직 미스매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홍보 안내문 발송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는 8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2017년 하반기 익산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688개소이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구분돼 있으며,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안내공문을 매년 상·하반기 2회 발송해 주민계도를 통해 지하수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소방서, 하트세이버 수여

군산소방서는 8일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정창현, 김미경 대원, 일반인 정재성씨에게 하트세이버 증서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킬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정재성 시민은 이삿짐을 나르던 도중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켰다.

하트세이버를 수여 받은 정재성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북콘서트 개최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익산 송림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 3차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천호성 교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남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각 시·군을 돌며 전북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 교육특보를 역임했던 천호성 교수는 현재 전북도 교육감 후보로 자전 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의 북 콘서트는 전북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천호성 교수는 “앞선 남원과 군산의 북 콘서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불리는 미래는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마인드

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과거의 문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지금의 문명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자신이 배움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교수는 “북 콘서트가 전북지역의 도민들과 전북의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며 앞으로도 전북지역을 돌며 북 콘서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호성 교수는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 대표이사, 전 미국 보이스 주립대학교 연구교수, 일본 나고야대학 수업연구회(NALS)연구위원 및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중국 국가예술기금 지원 인재양성 원광대학교, 한·중 교류행사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중국 경덕진대학에서 주관하는 ‘현대 도에 창작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 교수 및 청년예술가 40명을 초청해 8일부터 8일까지 한·중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현대 도에 창작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국가예술기금(China National Arts Fund)으로 지원하는 2016년도 예술 인재 양성 해외 지원 프로젝트로써 중국 국무원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원광대를 찾은 방문단은 중국 전역의 미술전공 교수 및 청년예술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와 함께 ‘글로벌 현대미술의 동향’을 주제로 교류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는 원광대 이강원(귀금속보석공예과), 조은영(미술과) 교수와 군산대 이명순(세라믹콘텐츠디자인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총 3개 세션의 발표에 이어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한국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교류행사를 주관한 조은영 교수는 “이번 국제교류 세미나는 중국 전역에



서 선정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교수들이 우리나라 호남지역 청년예술가 및 교수들과 함께 글로벌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현대 도에, 조소, 회화를 아우르는 미술작품 창작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편, 원광대와 중국 경덕진대학은 2015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해 학생 교환 및 유치,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류 등 활발한 교류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으며, 원광대는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대학 위상 제고를 통한 중국사업 특성화 입지구축은 물론 양국의 문화 교류, 학술토론, 세라믹 문화 혁신 및 확산을 촉진시키고, 대 중국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